



보 니 따 오 4 월 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우디스 간사님댁 방문 6	아띠끌라세 시작 7	8	9	10	한결 아픔 11	12
13	14	15	바자르데데 방문 16	포스터 제작 17	성금요일 기념 교회 방문 18	19
부활절 20	아띠끌라세 홍보 시작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인기 : Jeffrey (Jeffriano Da Silva)

마운 붓 (Big Brother)

보니두 (Handsome) 테라 산타의 베컴

요즘 띠 동갑들과 축구하느라 힘드신 인기용 축구인

나카르 (Naughty) 센터에서 날뛰는 개구쟁이

리따(22세/단골 환자) :
"선생님! 이 사진 살릴 수 있을까요?" 포토샵 명의

생활의 달인 아주 조금 쓸모 있음

라디오 진행자 제프리의 보니따리오

YMCA 어깨 담당 주위의 권유로 어깨 운동 중

안띠 도벤(Lover)

꿈꿈인기

깔깔인기

정 많고 인기 많은 정인기



김주희 : Jeni (Jenita Ximenes Mendes)

라오스 말라에 로피타 : "제프리 말라에(외국인), 토니 말라에, 리따 말라에, 제니 라(NO) 말라에"

습진 vs 아토피 vs 햇빛알레르기

팔에 난 피부병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

아마 제니 (Mother Jeni)

과일 짊아줄 때의 자상함 그리고 잔소리...

마나 클라라(기연간사님)의 러버

양성애자 (양파성애자)

감성애자 (감자성애자)

양배추 장인

기연간사님 : "제니, 쪼그만해서 너무 귀엽다."
(제니보다 1cm 큼)

여진아 언니 좀 그만 시켜... 과일 짊기 셔들

라 보니따 (No Pretty)

옷생겼다고? 내가????????????????????

아이들에게겐 인기녀



이한결 : Toni (Antoni Perreira)

별명왕 업터, 두더지, 혼돈니 등등 끊임없이 나오는 별명들

라보니두 (No HandSome)

새침대기 새침한 눈빛과 말투가 매력 포인트

(배킹)

떼뚱어 우등생, 자습왕

토니리 (이우승) vs 토니안

오탁카 아님

나니(수영)왕

부르주아 주 서식지 Hotel LAMELAU 수영장

기연 바라기 "내가 못 찍은 게 아니야, 니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리 팀 사진기사

뽕뽕이 셔들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돌러주는 일 뿐

정확히는 쌀 씻기 담당 밥 담당

팀의 보쿠르(똥뚱보)를 책임진다.

방구쟁이



심여진 : Lita (Juleita Da Costa)

리더 본인을 제외한 회의에서 선출. 책임감은 없고 권리만 있다. 가끔씩 언니, 오빠들을 체벌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청천 같이 칼 같은 결단력은 덤

망나니

나카르 (Naughty)

(엠)보성이 너의 배..... (???)

알린페토이꾼 (Lastborn)

보니따(Pretty) 티모르에서 만콤은 여신

동작 그만 밀장 빼기나 사기꾼

언니가 짊아준 과일 먹기만 하기

폭력배 "지금부터 체벌의 시간이 있습니다."

팀원의 심여진화

노 메이크업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티모르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무뎀무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무뎀은 하얗다는 의미인데 전 별로 하얗지도 않는데...

무뎀무뎀 (White)

(답정너 ver.)



SENTRO DE JOVENTU
E KOMUNIDADE

YMCA

TERRA-SANTA

보니따오 4월 활동소개



공식 일정





포에 7일 잔치





티모르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이 되면 잔치를 한다.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은 꽃잎이나 동전으로 눈을 씻는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닭의 피를 이마에 묻힌다.

우리는 우디스 간사님의 초대를 받아 간사님 댁에 가서 축하해주었다. 아띠들이 잔치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우디스 간사님의 언니의 사돈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함께 준비하고 즐겼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가족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가족단위의 모임에 들어가서 조금씩 티모르 레스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기분, 좋았어. 그리고 돼지, 오리, 닭, 개들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것부터 가족적으로 느껴졌던 거 같아. 또 우디스 간사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 만삭의 몸으로 아기 낳기 전까지 센터에 오시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 그러니 몸 다 추스르실 때까지 집에서 꼭 쉬셨으면 좋겠어!

우디스 간사님의 첫 아이의 축하 모임에 가게 되어서 의미가 깊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잔치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잔치에 오지 않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고. 정말 마을이 끈끈하다고 느꼈어.



나도 우디스 간사님 아기의 첫 축하 잔치에 초대받아서 기뻐. 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태어나서 걱정했는데 축하잔치도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어.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를 보며 기도 같은걸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도 인상 깊었어. 아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건 그 아이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마르페랑 마테우스를 그곳에서 만나서 반가웠어. 마르페가 센터에서와 달리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귀엽고!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어. 닭고기, 볶음밥, 샐러드, 등등. 처음으로 초대된 모임이었는데 다들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 하나 새로운 게 있다면 전통의식을 사돈이 와서 해줬다는 것? 티모르는 결혼을 하면 사돈 이런 것은 상관 안하고 그냥 가족이 된다고 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에 신기했어.





아피글라세 준비





우리의 주된 활동은 아띠끌라세이다. 4월7일부터 시작했으며 과학, 미술, 음악, 게임, 350ppm, 한국어수업이 있다. 현재 과학은 인기, 미술은 주희, 음악은 한결, 게임은 여진이가 맡고 있다.

준비

3월부터 준비한 아띠끌라세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15주 일정으로 잡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수업에 오게 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만들고 테라산타 마을에 붙였다.



아띠클라세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 계획이니까 빨리 대충 끝내자는 생각과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 잘 하고 싶은 부담감도 있었어. 결국 나는 대충 했는데 다른 팀원들이 잘 마무리해줘서 다행이야. 특히 한결이가 잘 정리하고 현지어로 번역도 잘 해줘서 아띠클라세를 운영하면서 편한 것 같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놀까, 친해질까 기대하며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 새롭게 시작하는 350ppm 시간에도 많은 기대를 했지. 홍보 포스터도 내 나름에 창의력을 발휘해 재밌게 만든 것 같아 (졸라맨 그렸음)



처음에는 막연히 재밌을 것 같고 기분도 좋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짚수록 아띠클라세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겼어. 아이들이 (제 시간에 많이) 모여줄까, 이 수업을 따라줄까,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까 등의 문제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들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 우리가 준비한 과학, 미술, 음악, 게임과 350PPM, 한국어 수업을 아이들이 재밌어 해주길!

나는 처음에 이 많은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하나 막막했는데 다 같이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짜니까 아띠클라세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또 홍보포스터도 4명이서 다 같이 준비하니까 정말 재밌게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어.





아띠글라세 실행





미술 시간

테라산타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림 그리기를 많이 말한다. 그만큼 미술 시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며 아띠들도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기 때문이다.)

미술 수업은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그림 그리기 뿐만 아니라 만들기 수업도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게임 시간

게임시간은 몸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비롯해 전통놀이를 함께 하기도 하고 주로 팀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다른 시간에 비해 뛰어 노는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매우 활발하고, 활발한 만큼 통제가 잘 안 된다.

수업은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에 이루어진다.



음악 시간

음악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된다. 아이들에게 올챙이 송과 응가 송을 번역해서 알려주고 함께 춤을 춘다. 올챙이 송은 다들 좋아했지만 응가 송은 처음에는 'Tee(응가)'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노래를 알려주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방방 뛰면서 자기 엉덩이를 치는 춤 동작을 보여주니 아이들도 다들 중독이 되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다니다가도 Tee Tee Tee Tee! 하며 엉덩이를 치곤 한다.

아직까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 위주라서 조금 아쉽다. 대부분의 수업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점점 센터에 오지 않고 있다. 빨리 에이핑크의 'nonono' 같은 케이팝 댄스들을 연습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과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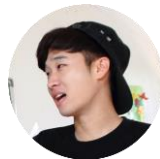
과학수업은 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신기한 자연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주를 이룬다. 최대한 원리를 설명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었다면 가능했을 수업을 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지금까지 물로 무지개 탑 쌓기, 종이 부메랑 만들기, 종이컵 전화기 만들기 등을 수업을 진행했다.



아띠끌라세를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었어. 뭔가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처음에 미술 수업 맡았을 때는 쉬운 걸 맡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았던 것 같아.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매일 그림그리기만 했지만, 그래서 더 아이들에게 미안했어.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는 더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맘이 편해. 앞으로가 문제지... 다른 팀원들이 도와주겠지???!!!!!

처음에는 임시로 음악 수업을 맡았었는데, 나름 즐거웠었어. 목이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근데 과학수업을 맡게 되니깐 암담하더라고, 내가 이공계열도 아니고(^_^;) 어릴 때도 많이 실험을 해보고 하진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깐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 실험 하나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팀원들이 도와주니 같이 있어서 좋고, 원리를 설명하려고 사전에 뒤적거려가면서 떼뚱어를 공부하게 되니 좋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얼굴을 보면 또 그건 뿌듯해서 좋고, 더 신기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거 하나 빼고 다 좋은 것 같아! 수업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게임 규칙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게임규칙만 가르쳐주면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야. 하지만 오는 아이들의 연령층이 3살부터 12살까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해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을지 고민이야.

사다리타기를 할 때 제발 음악 수업만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음악수업이 딱 걸려버렸어. 몸치에다가 목소리도 크지 않은 나에게 정말 맞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지 않아서 올챙이 송 정도의 쉬운 노래도 그리 잘 따라하지 못해. 그래도 그냥 함께 재밌게 뛰어 논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아이들의 반응이야.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내가 수업을 재밌게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해.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응가 송을 부르고 다니고 같이 하자고 하면 없던 힘도 다시 나지. 이제 얼른 더 재미있는 새로운 노래들을 연습해봐야겠어.

그리고 아띠끌라세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도 다들 좋아해주고 함께 재밌게 잘 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어진 시간을 꼭 채워야 해' '애들의 반응이 안 좋아하면 어쩌지?' 하는 부담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어. 하지만 우리들이 수업을 하는 목표 자체가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이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해.

총장님이 근 한 달간을 해외에 다녀오셔서 우리들만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350ppm과 한국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 이제 총장님도 돌아오시고 우리들도 티모르에 잘 적응해가니까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부활절





동티모르는 국민 대다수의 종교가 가톨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성대하고 의미있게 보낸다. 따라서 부활절 기간 전후로 많은 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연휴로 쉬는 곳도 있다.

YMCA 센터도 부활절 4일 전부터 부활절 당일까지 토요일 포함 5일 동안 (4월 16일 - 4월 20일) 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아띠들에게도 휴식이 주어졌다.



바자르떼떼

아띠들은 수요일(4/16)에 YMCA 청년들과 바자르떼떼지역의 수녀원을 갔다. 부활절 전후 휴일 동안 가톨릭교 청년들의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진 못했지만 바자르떼떼에 가는 동안 청년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성금요일

성금요일을 맞아 총장님과 아띠들은 총장님의 교회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가톨릭에서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에 올라 기도를 한다.



나는 쉬는 날이 길어서 좋았어!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가게들이 쉬거나 일찍 문 닫는 게 신기했어. 특히 금요일에 가톨릭교에서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것도 색다른 풍경이라 신기했어. 바자르떼떼를 갈 때는 도시인 딜리를 벗어나 다른 마을을 지나갔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삶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게 티모르 사람들의 삶이 나름대로 존중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가는 동안 같이 간 청년들이 너무 밝고 유쾌해서 나도 같이 즐거웠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카톨릭교인 사람들이 많아서 종교적 행사로 인해 가게들이 쉬거나 일찍 문 닫는 게 신기했어. 성금요일에 가톨릭교에서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것도 색다른 풍경이라 신기했어.



이거 내가 한 이야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닌데? 하나도 안 똑같은데? 난 사투리도 썼는데? 어쨌든 청년들과 바자르떼떼를 갔는데 청년들과 트럭 뒤에 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수녀원에서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





내가 느끼는 한국에서의 부활절은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이었어. 근데 이곳은 부활절을 정말 크게 준비하고 챙기는 모습이 놀라웠어. 총장님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정말 좋아하실거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축하를 했거든.

바자르떼떼에 갈 때 나는 총장님이 운전하시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갔어. 처음에는 그저 멀리 떠난다는 게 신났던 것 같아.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많은 비가 내렸고 차는 습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차에 타고 있는 내내 총장님이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습기 서린 안쪽 창문을 와이퍼처럼 계속해서 닦았어. 팔이 빠근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총장님과 이야기를 평소보다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가는 길에 과자도 손수 집어서 먹여드렸는데 좋아하셨던 것 같아.

(입에 먹여드릴 때 살짝 정색하신 거 같았지만 내가 잘못 본거겠지...?)

나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주부터 집에서 쉬는데다 연휴기간까지 겹쳐서 더 오래 쉬게 되었어. 거의 2주를 아무 것도 못(안)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떼뚱어도 다 까먹기도 하고... 부활절 행사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



이상 생활





한결 아픔





4월 11일 금요일, 전날까지만 해도 수영장에서 다이빙까지하며 즐겁게 놀던 한결이가 복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장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사와 구토 때문에 전혀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약들과 여러 민간요법을 총 동원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간사님들과 팀원들 모두의 걱정 속에 주말을 보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총장님과 병원에 다녀왔고 haan sala(잘못 먹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준 약은 효과가 있었고 아픈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한결이는 완쾌될 수 있었다.



처음에 한결이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을 땐 잠깐 아프고 말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도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긴장을 많이 했어. 특히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던 와중에 환자 대기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병원에서 쭉그려 앉아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 지금은 건강해져서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장난도 활발히 잘 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 또 아프면 여진이가 아픈 없는 세상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깐 티모르에서 다시는 아프지 말길.

처음에 토니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이나 아프니깐(한숨을 쉰다) 이제는 놓아줘야 되나 한국에 보내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 그래도 나아서 다행이야. 다음에는 아픈 팀원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한결이가 아파서 많이 걱정했어. 특히 아띠끌라세 계획에 대해서 한결이가 가장 잘 아는데 수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아프니까 막막하더라고. 며칠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주말이 지나고도 아파해서 조기귀국까지 걱정했어. 아픈 게 좀 오래가고 나중엔 이를 이용해서 피병도 부리는 것 같아서 괴심했지만 덕분에 조기 귀국하는 팀원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팀원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

제일 먼저 나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준 티모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ㅎㅎ 뭘 잘못먹은건지, 체한건지... 배 때문에 이렇게 아팠던 건 처음인 것 같아. 아무 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으니 한국음식 생각나고 그러다보니 집 생각도 나고...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주는대로 다 받아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겠어.





비오는 날, 정전





‘집에 혼자 있는데 정전되고 비까지 와 무서워’

4월 15일 오후,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에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은 한결이에게서 겁에 질린 듯한 문자가 왔다. 나머지 아띠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정전이 되어 캄캄한 거실에서 문을 다 잠그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결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한결이를 제외한 3명은 다음날 휴일이라는 기쁨에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빗 속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하지만 정전의 여파로 물이 안 나와 샤워도 못한 채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구제시장 탐방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에는 곳곳에 구제시장이 있다. 이미 3월에 여자 단원들이 먼저 탐방을 다녀왔다. 그리고 구제시장의 매력에 푹 빠진 여자단원들로 인해 이번 달에는 남자 단원들도 함께 구제시장에 다녀왔다.

우리들이 간 곳은 옷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었다. 많은 옷 더미들 속에서 아띠들은 자신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물가가 비싼 티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옷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개인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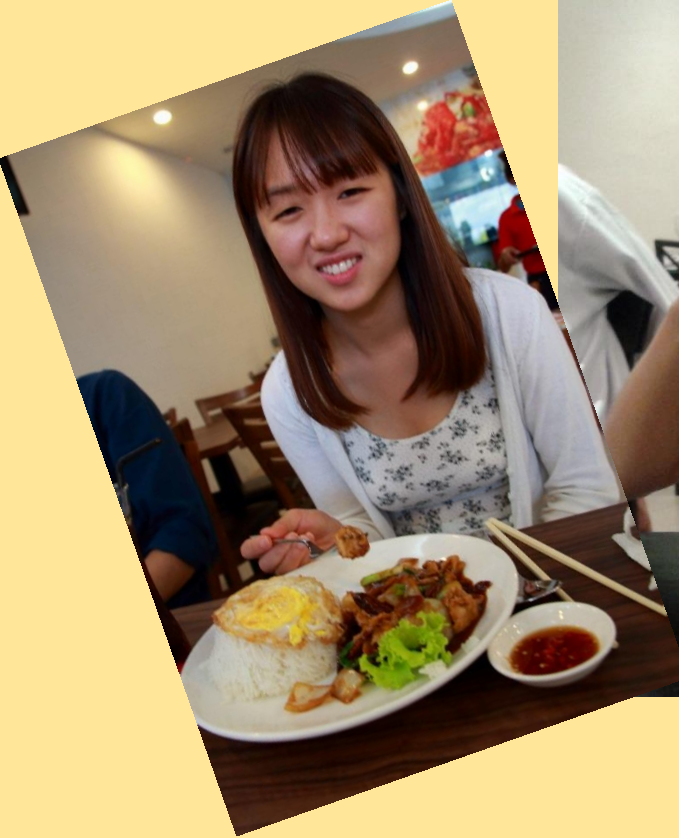


Ama Jeni의 요리교실

오늘의 요리는?

???





가끔은
나가서 사먹는다!!!^^;;

다음 호에 계속

Jeffrey의
보니따리오 (Bonita radio)



ON AIR



<사연 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보니따리오의 애청자 막둥이 리따예요. 맨날 신청곡만 남기다가 처음으로 사연도 남깁니다. 제가 활동하는 YMCA 센터에 '넬류'라는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말도 잘 듣고 활발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아끼는 아이죠. 그런데 가끔씩 넬류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어?' 라고 물어봐도 말없이 눈썹을 올리고 '안 먹었어?' 라고 물어봐도 말없이 눈썹을 올려요.

또!! 형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눈썹만 올려요. 넬류는 밥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형은 누굴까요? ㅠㅠ!!!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났다>



구제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신난 제프리 입니다!!

오늘은 꼬마한테 들었다 봤다 당하는 '보니따오' 팀 막내 여진양의 사연이네요.



넬류(5세)

넬류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귀여운 어린 아이인데요. 까불이, 장난꾸러기입니다.

여진양이 이야기 하는 표정은 눈썹을 '으쓱으쓱' 하는 표정인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저도 잘 사용하는 제스처입니다.

저한테는 꼬박꼬박 대답 잘해주는데 여진양한테만 이러는 거 보니, '일당' 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정보를 토대로 논리적 추론을 해보았을 때, 이걸...

그린라이트 네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눈썹 으쓱으쓱' →



다음 달에 또 만나요 😊



리다 리따의 티모르뉴스

리따의 맛집 기행 ①

새로운 바람이 불다. 포몬?!

봉쿠스!



<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봉쿠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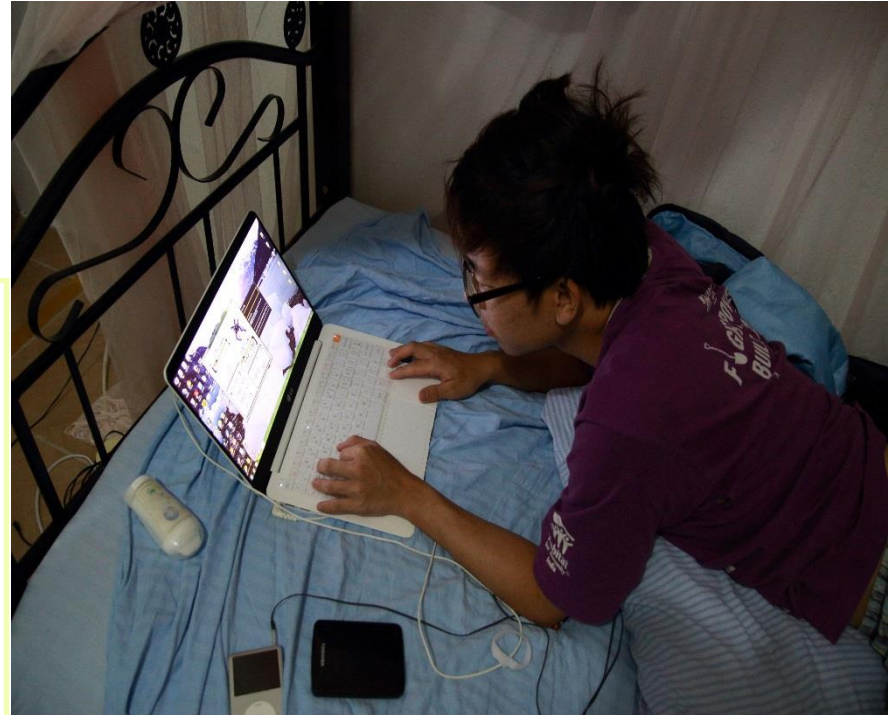
지친 티모르 아띠들은 외식을 결심하고 근처 티모르플라자로 향했다. 하지만 비싼 고추장을 질러 티모르플라자에서 외식하지 못하고 저렴한 음식점을 찾아 헤맸다. 토니의 추천으로 토니가 싸다고 확신하는 딜리클럽의 피자집을 갔는데 너무 비싸 포기하고 좌절하는 중 봉쿠스 집을 발견! 7달러로 모두의 한끼 식사를 해결했다고 한다. 그동안 봉쿠스 집의 위생에 대해 걱정하고 거부하던 리따는 그 집의 위생에 만족했다고 한다. 토니는 드디어 봉쿠스의 자유가 주어짐에 만족했다고 한다.

포켓몬스터



제프리의 친구가 보내 준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몬)라는 게임으로 인해 여기 티모르 아띠들에게 포켓몬스터 바람이 불고 있다. 제니 외에 모두 이 게임에 빠져버렸다고 한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틀 만에 질렸ㄷ...

네 이제 그만해야죠... 아마제니의 잔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모두 끊는다고 합니다. 이 체육관만 깨면 진짜 그만 해야지...!!



토니의 사진전

Toni's

Arte Moris galleria 동티모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거나 창작 하는 공간입니다.
-Arte Moris 예술가 분들 멋대로 간판 갈아치워서
죄송합니다.-

제프리는 내꺼야



÷?

아빠띠 요 불여시 같은 기집애 2



동티모르 길을 걷다 보면 치열한 전투의 흔적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보일 때가 있어. 처음에는 그냥 싸움이 많이 일어나나 보다 했지.

동티모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벌건 치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처음에는 어떤 병 같은 것에 걸리신 건가 했지.

동티모르에서 잔칫집에 가게 되면 깻잎 같은 잎에 조그마한 꽃감 비슷한 것에 하얀 가루를 뿌려서 주곤 해. 잔칫집에 가서 주인이 이것을 권할 때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라나?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게 쓴 가루약 맛 꽃감을 먹는 것 같아서 삼킬 수조차 없었어.

그리고 나만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만들어냈지.

‘마칸시리이’ 동티모르에 오면 한번 쬐은..

-마칸시리이 으억-

심여진이 포스터 감 사진을 망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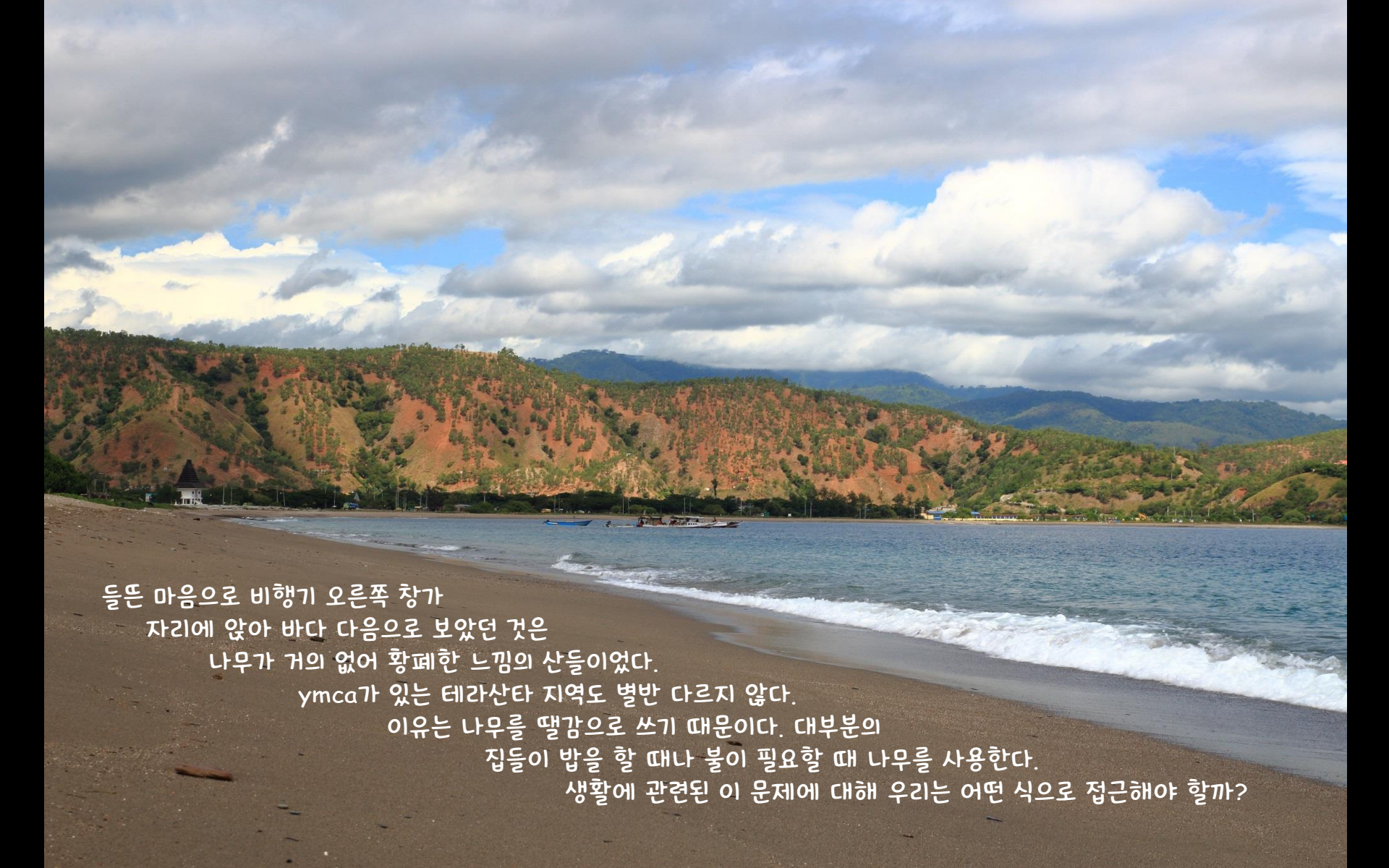


맛있는 즐거움
편리한 즐거움
새로운 즐거움
저렴한 즐거움
푸짐한 즐거움
치킨맛 즐거움
생선맛 즐거움
쓸게 없는데
아무튼 마시뽕

-봉쿠스 예찬-

표정이 다양해서 좋은 주희 스페셜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 다음으로 보았던 것은
나무가 거의 없어 황폐한 느낌의 산들이었다.
ymca가 있는 테라산타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유는 나무를 땀감으로 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집들이 밥을 할 때나 불이 필요할 때 나무를 사용한다.
생활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개인 소감





①

이제 이곳에서 지낸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처음 한 달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몰랐던 언어를 알아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기했던 것들이 익숙한 것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게 해 학교 대신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마을 곳곳에 넘쳐나는 쓰레기, 생각보다 낮은 여성인권과 같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그 외에도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와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보았으니,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또 행동하는 내가 되고 싶다.**

②

힘들고 지칠 때 한국에서는 언제나 비상구가 있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고, 터놓고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노래방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밤새 영화를 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은 날에는 PC방으로 달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곳 티모르 레스떼에서는 내가 힘들 때 찾던 비상구들이 거의 없다. 마음이 힘든 날에도 정해진 시각에 센터에 가야만 했고, 자기 전까지 계속 누군가와 있었다. 그러다보니 **내 안의 나쁜 감정들이 배설이 안되고 쌓여져만 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감정의 배설을 외부로 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 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했다. 처음엔 도무지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내 자신을 조금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이었다. 그 때문에 때때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평소에 남을 의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남을 보지 않으면, 내 자신밖에 모르게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힘들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 '라온아띠'로서 **더 잘 살기 위해 이제는 남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남이 규정지은 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려고 노력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하기에, 남은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더 관찰할 것이다. 내 자신의 모순점, 연약함을 발견하고 괴로운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알고 나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곳에서 타인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된다면 세상과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즐겁고 힘들고, 재밌고 짜증나는 한 달이었다.

1. 아띠끌라세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그리고 끝나면 자꾸 센터 밖에서 지내는 것 같다.’ 나는 아띠끌라세를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다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양동화 간사님께서 그동안 아띠들이 테라산타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센터 주변에 사는 친구에게 변화가 있었다. 여진이가 매일 놀러 가는 집에 사는 레나는 아들 게핑과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4월말부터 게핑이랑 센터도 오고 만들기도 같이 해서 아들 장난감으로 주는 등 많이 활발해졌다. 그 일을 계기로 **센터에서 하는 활동만 라온아띠 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2. 세월호

4월은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고 때문에 티모르에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사고가 난 당일에 우리는 휴일이라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양 간사님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들었다. 그 후 매일 저녁에 간사님들을 통해 계속해서 소식을 접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속상한 일이라서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날까봐 그 소식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이미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들리는 소식들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일 사무실에서 간사님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들어야만 했다. 양 간사님과 면담 시간에 이런 점이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양 간사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살아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유가족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일, 촛불을 하나 드는 일, 인터넷에 위로의 댓글을 남기는 일,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특히 친구들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단원고 학생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일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다. 여태까지 죽은 이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학생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잠깐의 마음 아픔도 거부했던 내 자신이 한심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하지만 참고 계속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
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 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샤를르 드 푸코



4월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달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는 속도도 더 빨리 느껴진다. 이번 달부터는 아띠클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아띠클라세의 목적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보호하고 같이 노는 것이다.** 하지만 센터에 잘 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불러올 수 있을지, 돈을 걸고 하는 빙고에 빠진 큰 **아이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센터에 올지 고민**이다. 나 또한 아이들이랑 놀면 금방 덥고 지쳐서 아이들을 센터에 두고 마을 사람들 집에 놀러가게 된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하는 팀원들이 있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반성하게 된다.**

4월은 3월에 비해 즐겁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도 마음을 무겁게 했고, 일상에서도 우리 성격이 너무 달라서 생각도, 행동도 안 맞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다름이 나에게 생각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척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름을 이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간사님과의 면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와 팀원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니 조금 더 팀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상이 되어버린 일상

아침 7시15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씻는다. 잠시 눈을 붙이곤 8시 45분 센터로 향하는 미끄롤렛을 기다린다. 12시 자신이 맡은 교육을 끝마치고 집으로 가 점심 휴식시간을 갖는다. 2시간 후 다시 센터, 다시 집으로 가는 미끄롤렛, 저녁을 먹고 수영, 떼뚱어 공부, 미드 보기 그리고 12시 쯤 잠에 든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티모르의 일상...**

벌써 **티모르에 온지 두 달이 넘어간다.** 센터에 가면 마운 토니! 하며 다가오는 아이들, 우리만 보면 '라멜라 호텔 2달러'를 부르는 티모르 플라자 앞 택시기사들,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싶은 떼뚱어까지 **어느새 나와 티모르는 서로 익숙해지고 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기도 싫기도 하다. 생활에 익숙해지니 편해지지만 **새로움을 찾고 경험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뜻이니까.

'아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음악 수업이네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집에 돌아가서 밥만 차리고 왕좌의 게임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익숙한 생각과 함께 티모르의 일상은 한 주씩 지나가고 있다. 솔직히 **이 익숙함에 지쳐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나날들 우리끼리 어디를 다녀온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가끔 익숙함에 대한 사소한 반항으로 혼자 바로 옆에 있는 라멜라 호텔에서 혼자 외식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소한 반항이니까. **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좋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경험하고 어느새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나라는 창고가 좋다.**

하지만 이 일상 속에서 나는 동티모르에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아띠끌라세도 사실 한국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해본 것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별 활동이 없다고 느끼니까. 흥미를 잃었다고 해야 하나?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대신 **더 파묻히기를 선택했다**. 편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음악 수업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차린 후 침대에 누워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별 생각 안 드니까. 원래도 별로 안하던 팀원들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관계는 악화되어갔다. 그리고 수차례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난 사람들과의 잡담을 즐기는 편이 아니고 **자신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 마음의 성안에서 혼자 배운 것을 깨우치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여수에서나 동티모르에서나 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창고를 채우는데 열중하고 그냥 그냥 싸우지만 않고 돌아가면 되지’ 하지만 두 달째 함께 생활해 본 결과 그냥 저냥은 너무나 힘들다. 나는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나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니 노력할 마음도 없었으니...

‘어쩌면 내가 지금 느끼는 티모르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보면 새로운 배움이 아닐까? 사람을 사귀는 법을,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

이렇게 생각하니 처음으로 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보려고 한다.

‘5개월 동안 팀원들과 잘만 지내 다와도 잘한 거야’ **그래 한번 잘해보자**



다음 달에 만나요 😊